

건강한 단맛으로 소비자 입맛 사로잡는 제과업체

카자흐스탄 사무소

차문화 발달로 제과 소비율도 높아

- 카자흐인 신체의 70%는 차로 이루어져 있다는 카자흐스탄 속담이 있다. 그만큼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삶의 일부로 여길만큼 차를 애용하고 있다는 뜻이다. 또한 차와 곁들여 먹는 제과류에 대한 현지인들의 수요 역시 높은 편이다.
- 카자흐스탄 통계청에 따르면, 2017년 기준 1인당 제과류 소비량은 41.3kg으로 현지인들이 즐겨먹는 감자(46.9kg)와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. 카자흐스탄은 CIS국가* 중 시장규모 대비 1인당 소비액이 높고 제과류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하여 향후 제과시장의 꾸준한 성장이 전망된다.

* CIS국가 : 독립 국가 연합 [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]. 구 소련에 속했던 나라들 가운데 11개국이 소련의 소멸과 함께 결성한 정치 공동체

카자흐스탄 제과업체의 지속적인 상승세







- 카자흐스탄 제과시장은 러시아, 키르기스스탄 등 수입 브랜드 점유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카자흐스탄 현지 제과업체 시장 점유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 2018년 1월 기준 카자흐스탄 제과업체의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.5% 증가했으며 국내 판매량은 6.4%, 수출량은 29.3% 증가했다. 제과류 최대 생산지역은 알마티로 2018년 1월 기준 전체 생산량의 54.8%를 차지했다.
- 현지 대형 제과업체로는 Rakhat, Bayan sulu, Almatinski product, Hamle 등이 유명하다. 2017년 기준 이들 제과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44%, 26%, 15%, 9%이다.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Rakhat는 근 75년간이나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 제과업체이며 2013년 롯데제과가 인수 후, 롯데제과의 제품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다.

웰빙 제과에 주목하는 소비자들

- 최근 카자흐스탄 제과시장에는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빙 제과류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. 카자흐스탄 대형마트 중 한곳인 Galmart의 경우 상품진열대 한 면 전체가 일반제과와는 별도로 웰빙 제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. 웰빙 제과 종류로는 비스킷, 초콜릿, 사탕 등이 주요 품목으로 꼽힌다.



카자흐스탄 주요 웰빙 제과류 현황

| 업체명 | Di&Di (러시아) | Dr.Körner (러시아) | Petrodiet (러시아) |
|--------------|---|---|---|
| 제품 이미지 |  |  |  |
| 제품명 | Umnye Sladosti (Smart Sweets) | Dr.Körner | Brownie |
| 제품설명 | 스테비아를 사용한 캔디류로 글루텐, 과당, 설탕 무첨가 (210g) | 비타민, 미네랄 맛 크리스피 브레드로 소금 무첨가 (100g) | 스테비아를 사용한 체리 맛 브라우니 에너지바 (50g) |
| 가격(Galmart*) | 2,100KZT | 485KZT | 495KZT |
| 업체명 | Di&Di (러시아) | Rakhat (카자흐스탄) | Trapeza (러시아) |
| 제품 이미지 |  |  |  |
| 제품명 | Zefir (Marshmallow) | Na zdorovie! (For health!) | Pryanik |
| 제품설명 | 스테비아를 사용한 마시멜로 이며, 글루텐, 설탕 무첨가 (400g) | 고급 우유가 함유된 초콜릿으로 설탕 무첨가 (100g) | 설탕 무첨가 쿠키 (300g) |
| 가격(Galmart*) | 2,990KZT | 235KZT | 585KZT |

* 2018년 8월 8일 기준

- 러시아 웰빙 제과업체 Di&Di의 경우 천연원료만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다. 설탕처럼 단맛을 내는 천연원료 스테비아, 신이 내린 곡물이라 불리는 슈퍼푸드 아마란스, 줄이면 단맛이 강해지는 돼지감자(예루살렘 아티 초크)가 주원료이다. 제과업체 피트로디에트 또한 천연 식물성분 및 천연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한다.
-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의 건강식품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제과업계에서는 웰빙 제과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있다. 단맛을 선호함과 동시에 건강함을 찾는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을 고려한 제품은 향후 수출 유망 품목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, 국내 업체들도 건강한 단맛을 내는 제과제품으로 카자흐스탄 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.